

지구촌 양계뉴스

..... 한국 덴마크산 가금육 등 수입검역 잠정중단

덴마크산 가금육에 대한 수입검역이 잠정 중단됐다.

덴마크 당국에 따르면 지난 3월 16일 덴마크 코펜하겐 남부에서 발견된 야생 조류(말뚝가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덴마크산 가금류·야생 조류·계란·가금육에 대한 수입검역을 잠정 중단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한편, 덴마크는 방역대 설치, 방역지역내 모든 가금의 야외사육금지, 가금사육지 등록, 가금과 계란의 이동제한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와 관련 농림부는 “향후 덴마크의 가금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할 경우 수입검역 잠정중단을 수입금지 조치로 전환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 농림부

다리 네 개인 닭 발견

발이 네 개나 달린 닭이 발견됐다.

경기 포천시 관인면 판동2리 설림농장 직원 임기순(77) 씨는 지난 3월 10일 “닭에게 모이를 주다



두 다리 외에 엉덩이 쪽에서 뒤로 뻗은 다리와 몸통 아래에서 왼쪽으로 뻗은 다리가 달린 닭을 2월 말경 발견했다”고 말했다.

임 씨는 “지난해 말 경기 용인시의 한 부화장에서 병아리 6만여 마리를 사들여 길렀는데 2월 말 닭을 절반 가량 팔아 닭장이 흰해지자 네 발 달린 닭이 눈에 들어왔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기형 닭은 오래 살지 못하는데 네 발 달린 닭이 70여 일이나 생존한 것은 특이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 측은 “네 발 달린 닭이 있다는 이야기는 처음 들었다”고 말했다.

이 닭의 무게는 1kg 정도여서 같은 시기에 부화한 다른 닭들에 비해 30%가량 덜 나간다.

임 씨는 이 닭이 모이를 잘 먹고 있어 한 달 보름 뒤면 여느 암탉처럼 알을 낳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는 손님을 끌기 위해 이 닭을 농장 인근에서 낚시터를 운영하는 처남에게 줄 계획이라고 한다.

- 포천=동아일보



..... E U
 AI타격 농가 특별 예산 지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타격을 입은 역내 가금류 사육 농민들에 대해 특별 예산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고 3월 29일 밝혔다.

마리안 피셔 벨 EU 농업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AI 확산으로 타격을 입은 계란과 가금육 시장을 지지하기 위한 부담을 회원국들과 나눠 갖기 위해 EU 예산 지원방안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현재의 EU 규칙은 AI가 발생해 직접 타격을 입은 농민들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벨 집행위원은 “전례 없는 상황을 맞아 기존의 수단으로 더이상 대처할 수 없게 됐다”고 특별지원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유럽내 AI 상륙이후 치명적인 H5N1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면서 역내 가금육 판매가 지난해에 비해 평균 10% 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탈리아에선 가금육 판매가 70%나 줄었고 프랑스도 20% 떨어져 관련 농가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한편 체코 남부에서 죽은 한 백조의 사체에서 H5형 AI바이러스가 처음 발견됐으며, 인간에게 전염될 수 있는 H5N1형인지는 영국 웨이브리지 EU 연구소의 조직검사 결과가 나오는 내 주 중반께 알게 된다고 체코 농업부가 밝혔다.

- 브뤼셀=연합뉴스

..... 브라질
 AI 영향으로 닭고기 가격파동 조짐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세계 최대의 닭고기 생산·수출국인 브라질의 내수 가격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내려가면서 가격파동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현지 언론이 3월 27일 보도했다.

브라질 내 주요 할인판매점들은 지난 주말 상파울루 주 전 지역에서 최상급 품질의 냉동 닭고기를 kg당 0.99헤알(약 0.45달러)에 할인 판매해 닭고기 판매가격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이 가격은 지난 1994년 브라질 정부가 ‘헤알(Real) 플랜’을 도입할 당시 기준으로 삼았던 1헤알 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화폐가치 변동을 감안하면 실제 닭고기 판매가격은 63% 정도 떨어진 셈이라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브라질 정부는 헤알 플랜을 도입하면서 가장 서민적인 음식인 닭고기의 판매가격이 1헤알이라는 사실을 기준으로 삼아 미국 달러화 대비 헤알화 환율을 1 대 1로 정했었다.

한 할인판매점 관계자는 “유럽 및 아시아 지역 국가들과 진행하던 수출협상이 취소되면서 수출용 닭고기가 내수시장에 풀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AI 확산으로 수출이 더욱 줄어들 경우 대규모 손실을 피하려는 업체들이 내수시장에 주력하면서 닭고기 가격이 폭락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브라질 정부는 유럽 지역에 대한 닭고기 수출이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가격파동과

같은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브라질 농업부의 한 관계자는 “유럽연합(EU) 국가 가운데 최대 닭고기 소비국인 프랑스의 경우 한 때 수출량이 30% 이상 감소했으나 현재는 지난해보다 7~10% 줄어든 수준”이라면서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유럽 지역에 대한 수출이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 상파울루=연합뉴스

AI 대비 국경넘는 철새 포획 조치

브라질 정부가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을 막기 위해 철새의 주요 이동경로인 북동부 지역에 감시초소를 설치하고 AI 검역에 필요할 경우 철새를 수시로 포획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현지 언론이 3월 2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브라질 농업부는 이날 철새의 주요 이동경로에 위치한 북동부 페르남부코 주에 2개 감시초소를 설치하고 철새의 도래 현황을 정밀 파악하도록 하는 한편 AI 감염이 의심될 경우 즉시 포획해 전문 연구소의 검역을 거치도록 했다.

감시초소가 설치된 지역은 페르남부코 주 페르난도 데 노롱야 군도와 코로아 도아비아앙 섬으로, 평소 캐나다와 미국 등 북미지역으로부터 날아오는 철새들의 도래지로 알려져 있다.

가브리엘 마시엘 브라질 농업부 축산방역국장은 “브라질은 철새에 의한 AI 감염가능성이 높은 편은 아니지만 예방조치를 위해 철새 도래지에 감시초소를 설치한 것”이라면서 “앞으로

감시초소 설치 뿐 아니라 AI 감염 여부를 정확하게 검사할 수 있는 연구소 운영에도 대규모 투자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마시엘 국장은 페르남부코 주 외에도 철새의 도래가 예상되는 리오 그란데 도술, 파라나, 마토 그로소 도 술 등 남부 3개 주와 바이아, 리오 그란데 도 노르테, 마라냥, 파라, 아마파 등 북부 5개 주에서도 감시초소 설치와 포획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 상파울루=연합뉴스

베트남 중국 가금류 밀수입 단속 실시

베트남 정부가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을 막기 위해 중국산 가금류 밀수입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베트남은 지난 3월 23일 H5N1형 바이러스를 전염시킬 수 있는 무증상 AI 감염 닭들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중국에서 수입된 가금류에 대한 새로운 단속 명령을 내렸다.

까오 둑 팻 베트남 농촌개발부장관은 베트남 전국 64개 도시 당국자들에게 중국산 가금류 밀수입 제재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베트남은 AI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해 중국을 비롯, 모든 인접국들의 가금류와 가금류 생산물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취했다.

이번 중국산 가금류 밀수입 단속조치는 중국에서 무증상 H5N1형 바이러스 감염 닭들이 발



견됐다는 보도가 나온 뒤 실시됐다.

베트남의 경우 2만마리 닭들을 무작위 추출 조사한 결과 아직 이런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다.

베트남에서 중국 가금류 밀수입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중국에서 닭을 밀수입해 오는 가격이 1kg에 31센트(약 300원) 정도인데 반해 판매가는 12배가 넘어 이윤이 크기 때문이다.

- 하노이=로이터/뉴시스

..... **일 본**
日연구진, 가금류용 AI백신 개발

H5N1형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의 가금류 감염을 막기 위한 새로운 백신이 일본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다고 요미우리(讀賣) 신문이 3월 22일자로 보도했다.

일본 홋카이도(北海道)대학 연구진들은 지난 3월 21일 일본수의학회 주최로 이바라키(茨城)현 쓰쿠바(筑波)에서 열린 학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새로 개발된 백신은 투여 후 1주일 이내 닭 생체내 항체를 증가시켜 기존 백신에 비해 신속한 효과를 나타냈으며 항체도 6개월간 지속됐다.

실험에서 H5N1형 바이러스에 노출된 닭 가운데 백신을 맞지 못한 닭은 모두 2주내 폐사했으나 백신을 투여한 닭은 건강한 상태로 생존했다.

새 백신이 개발됨에 따라 일본 정부가 비축하고 있는 수입 백신치료제를 대체하는 효과도 있

을 것으로 연구진들은 기대하고 있다.


- 쓰쿠바 UPI=연합뉴스

..... **북 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강화

북한은 철새로부터 오는 AI 위협에 대해 경계하고 있으며, AI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해 2월 평양의 가금 농장 2곳에서 H7형 AI가 발생해 닭 20만수 이상 살처분했으며, 110만수의 닭에 예방접종을 실시한 바 있다.

북한은 중국에서 철새가 3월과 4월에 이주해 올 것으로 보고 방역위원회는 감시초소를 세워 이동조류를 철저히 감시, 통제하고 신속히 통보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이상징후 등 매일 통보 및 죽은 조류 실험실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가금류가 야생조류와 접촉 못하도록 가둬 기르도록 감독·통제한다고 밝혔다. 

- 로이터

